

산업인력공단 서부지사 개소

군산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군산시는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서부지사(지사장 박정, 이하 산인공 서부지사)를 군산에 유치해 1월부터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인공 서부지사 관할지역은 전라북도 서부권역 3개시(군산, 익산, 김제)와 2개군(부안, 고창)이다. 산인공 서부지사의 개소로 전라북도 서부권역 6만4천여 기업과 29만8천명의 근로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산인공 서부지사는 기업과 근로자의 평생학습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학습병행,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고용지원 등 다양

한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 서부권역의 인구는 2022. 12월 기준 71만명(군산, 익산, 김제, 부안, 고창)으로 전라북도 인구수(177만)의 40.1%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전라북도 전체 산업단지 90개 중 45개(50%)가 서부권역에 분포되어 있다.

입주 기업체수는 지난해 3분기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현황 기준 5,056개중 3,656개로 전북전체의 72.3%를 차지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전체 사업량 중 상당 부분이 서부권역의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민원인 편의를 위한 서부지사 신설은 지난 2008년부터 지역 내에서 꾸준히 제기 되어 온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에 지난 2016년 전북지사 소속의 일학습센터를 군산에 개소해 일학습 병행사업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일부 사업의 현장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산인공 서부지사 신설을 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과 함께 힘을 모아 꾸준히 노력한 결과 드디어 일학습센터가 전북서부지사로 승격(2022년 7월)되어 정식 기관으로 개소하게 됐다. /군산=김관용 기자



익산청년시장이 민·관·학 협업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실질적 취업역량 강화와 문화, 복지 실현을 이룰 맞춤형 청년지원을 마련한다.

“청년들 니즈에 부합하는 지원”

민·관·학 협업으로 익산형 맞춤 청년지원 마련

익산청년시장이 민·관·학 협업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실질적 취업역량 강화와 문화, 복지 실현을 이룰 맞춤형 청년지원을 마련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익산청년시장은 원광보건대학교, 익산청년희망네트워크와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보욱 익산청년시장과 임재현 원광보건대학교 HIVE센터장, 박문용 익산청년희망네트워크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주거, 복지 등 정주 여건과 청년들의 삶의 질, 행복추구권을 확보해 청년도시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청년시장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관련 전문역량 강화교육 및 지원, 문화소통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 등 종합행정을 추진하여 청년정책 허브역할을 수행한다.

원광보건대학교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과 연계해 그린바이오 식품,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지역 특화분야의 창업교육과정 및 리빙랩 프로젝트, 지역 청년활동 및 구도심 활성화 등에 대해 협업할 계획이다.

익산청년희망네트워크는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 공동체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청년의 아이디어, 정책고민 등 집단지성으로 청년 아젠다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보욱 익산청년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민·관·학 협력을 통한 보다 다양한 청년정책 기반 여건을 마련한 만큼 청년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청년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기자

한방난임치료 · 산후관리까지... 익산시 출산장려 결집

도내 최초 한방난임치료 남성까지 확대... 출산률 증가 기대

익산시가 한방난임치료부터 출산 후 산모건강관리까지 아이낳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도내 최초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형 한방난임치료를 남성까지 확대운영하고 산후건강관리까지 책임지며 가입 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난임 부부 한방치료 대상자 30쌍을 모집한다.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은 자연임신을 위한 체질 개선 치료비로 여성에게 180만원, 남성에게 50만원을 지원 하는 것이다.

난임여성에게 한의약을 이용한 치료를 통하여 임신 가능성을 높여 임신을 향상에 도움을 준다. 치료기간은 4개

월로 한약제 복용 및 침 뜸 등의 한방 요법으로 이뤄진다. 사업대상자가 남성까지 확대됨으로써 부부간 정서적 유대가 강화되고 치료 순응도 향상에 따라 임신 성공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참여자들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비롯해 한의약 치료의 효과와 신체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시는 한방난임치료를 도내 최초로 2013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305명 대상자 중 94명(30.8%)이 임신에 성공했다.

지원대상은 여성기준 만 44세이하 난임부부로 부부 모두 익산지역에 주

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선정된 대상자들은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익산시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난임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한방난임치료와 연계해 2019년부터 도내 최초로 시행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인당 20만 원씩 산후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9년부터부터 2,800명에게 지원됐다.

시는 올해 도비를 포함해 총액8,200만원을 투입해 910명의 산모에게 산후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익산=이재훈기자

익산시, 중소기업지원 ‘전력’ ... 맞춤형정책 적극 투입

익산시가 물가상승을 비롯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쏟는다.

시는 이달 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시작으로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육성책과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에 총300여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연간 400억원 한도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확장, 총18억원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에 힘쓴다.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업체당 4억원 이내 3~4.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수출보증, 마케팅, 물류비 지원 등 적체적소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총 7개 사업에 300여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산업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산

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중소기업 환경·시설개선 및 접근성 향상 등 생산현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총 6개사업에 80여천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음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찾는 일터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익산=이재훈기자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체험형 안전교육 호응

어린이교통공원이 체험형·맞춤형 안전교육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9일 어린이교통공원이 평일 3회, 토요일 2회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체험 및 현장형 위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해양안전, 디지털체험존(가상현실, 혼합현실, 콘텐츠 테마교육)으로 어린이교통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실시하면 된다.

지난해 이용현황은 총 9,492명으로 군산 5,881명, 전주 674명, 익산 1,467명, 김제 335명, 서천 317명 기타 818명이 이용했다. 앞서 지난 2021년 5,916명, 2020년 802명(코로나19로 11.2~27.만 운영) 2019년 13,782명으로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시는 참여확대를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미취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안전교육으로 안전의식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실질적 대처능력을 향상 시킬 예정이다. /군산=김관용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설 명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

익산시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강화에 따른 지역 전통재래시장과 식당 등 441개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설 맞이 명절 성수식품 구매가 잦은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위생감시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명예감시원과 함께 전통재래시장과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등)를 현장 지도·점검한다.

이번 원산지 표시 점검 대상은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인 전통재래시장 9개 구역과 인근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이다.

점검 내용은 제수용 과일류, 한과류, 채소류, 생선류, 육류 등 원산지 표시 여부,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24개 품목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익산=이재훈기자

익산시, 결식우려아동 따뜻한 한끼 지원

익산시가 결식 우려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복지사각지대 결식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 아동급식지킴이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135명을 포함해 올해 총1,000여명의 결식우려 아동에게 따뜻한 한끼를 지원한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결식우려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익산시는 올해 급식 공백을 방지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총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부터 천원을 인상해 한끼당 8,000원의 부식을 지원한다. 이는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으로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급식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성장기 아동에게 한끼는 영양 개선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따뜻한 사랑이 담긴 한 끼가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건강한 영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